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PARIS TRAIN

가제 : 파리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자 : Lorraine Brown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로맨스



***여행의 낭만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 했던 그 때, 새로운 인연을 만나 그 간의 삶과 사랑을 돌아보게 되면서 벌어지는 한 여자의 이야기**

여행은 우리가 가진 많은 모습을 드러내게 만든다. 무거운 짐 때문에 킁킁대며 땀별 아래에서 걷다가, 길을 잃었을 때, 흑 예기치 못한 일 생길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 했던 사랑하는 연인조차 말이다.

한나는 남자친구 시몬의 여동생 캐서린의 결혼식이 열리는 암스테르담에 가기 전 시몬과 함께 베네치아에 잠시 머물며 오랜만에 로맨틱한 휴일을 보냈다. 하지만 그 달콤함도 잠시 한나가 출발 직전 들렀던 가게에 지갑을 두고 오는 바람에 둘은 기차를 놓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겨우 지갑을 찾고 서둘러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가는 길, 시몬은 바쁘고 정신 없는 상황 때문인지 한나에게 계속 툭툭거렸고 평소와는 달리 거칠게 굴기 시작했다. 다행이 둘은 가까스로 기차에 올라탔고 한나는 베네치아의 낭만을 잊고 점점 현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겨우 자리를 찾은 한나와 시몬은 또 한번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 곤혹을 치렀다. 한나와 시몬이 예약해 둔 자리에 다른 승객들이 앉아있었고 그들 또한 같은 시간, 같은 기차, 같은 좌석 번호가 적혀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나와 시몬의 티켓은 직원이 실수로 이중 발급한 티켓이었다. 시몬은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욕지거리를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한나는 아이가 있는 그 가족에게 좌석을 양보하자고 설득했다. 시몬은 조금이라도 계획이 틀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한나의 제안에 일단 수긍했다. 한나는 시몬의 색다른 모습을 보게 되자 괜히 불안해졌고 둘의 관계가 과연 괜찮은 건지 의심스러웠다. 둘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식당칸에 앉아서 암스테르담까지 가기로 했다. 다행히 시몬의 기분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몬의 가족은 좀처럼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시몬의 어머니 파울린은 딸의 결혼이 마치 세기의 결혼식이라도 되는 양 결혼 전날까지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중이었고 시몬의 여동생 역시 불안한 마음에 자꾸 시몬에게 전화를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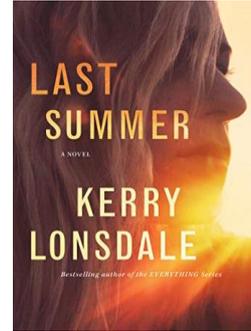
시몬이 평소와 달리 핸드폰을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시몬의 핸드폰이 또 울리기 시작했고 한나는 그저 또 가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두었다. 자리에 다시 돌아온 시몬은 자신이 핸드폰을 두고 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화들짝 놀란 기색이었고 좀 전에 온 전화는 회사에서 온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나를 안심시켰다. 한나는 심심한 마음에 시몬의 핸드폰 속 사진첩을 살펴보던 중 때마침 도착한 의문의 메시지 한 통을 보게 되었다. 시몬은 그 메시지를 보더니 역시 일 때문에 온 연락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돌려뒀지만 휴일에, 그것도 저장하지도 않은 번호로 온 그 메시지는 분명 어딘가 의심스러웠다.

몇 시간 후, 시몬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한나는 그의 핸드폰에 방금 도착한 메시지를 또 보게 되었다. 그 의문의 발신자는 계속 시몬에게 '나야, AI'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한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시몬과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짐칸에 짐을 옮기러 갔다가 피곤한 나머지 아무데나 앉아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뜬 한나는 자신이 엉뚱한 곳에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기차 온 곳을 뒤져봤지만 시몬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전화도 먹통이었다. 다급해진 한나는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했고 승무원은 이 기차가 암스테르담이 아닌 파리로 가는 기차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한나가 잠든 사이 기차가 파리로 가는 기차와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기차로 나뉘어진 것이다. 한나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파리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기차역으로 갔고 4분만에 기차에 오르기 위해 전력 질주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바람에 허둥지둥 대다가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널 부러져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프랑스로 종일대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한나는 그 남자의 도움을 극구 사양했지만 그는 자신 때문에 한나가 다쳤으니 한나가 괜찮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레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프랑스 남자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된 한나는 이 남자 덕분에 자신과 시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레오는 늘 규칙과 안정성만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는 시몬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레오는 한나가 시몬과 있을 때는 단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한나의 인생은 이제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었다. 불운처럼 보였던 이 모든 우연의 조각들이 한나의 삶에 어떤 신호를 알리는 것은 아닐까? 한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랑과 관계,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레인 브라운은 (Lorraine Brown)은 펭귄랜덤하우스의 '2017 Write Now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선정된 열한명의 멘티 중 한 명이다.

제목 : LAST SUMMER
가제 : 지난 여름의 기억
저자 : Kerry Lonsdal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7월 9일
분량 : 297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 "지옥의 문을 열어 버린 의문의 교통 사고와 낭만적인 미스터리에 관한 이 이야기는 독자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것이다."- 「올 어바웃 로맨스」**

누군가가 엘라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엘라는 깊은 꿈 속에 빠져 있다가 막 갠 것처럼 정신이 몽롱했다. 눈을 뜨니 초췌한 얼굴을 하고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 다미엔의 얼굴이 보였다. 몸에는 거즈가 덮여있었고 목에서는 쓴맛이 났다. 엘라는 자신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도, 일주일 내내 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는 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엘라는 자신이 이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매번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여러 차례 온갖 검사를 받았다는 것도 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남편 다미엔은 사고 직후도 아니고 일주일만 지나서야 갑자기 모든 기억을 잃은 엘라를 보며 황당하다 못해 짜증까지 난 것처럼 보였다. 엘라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악몽인 것만 같았다.

엘라는 이 사고로 시몬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준 뱃속의 아기를 잃었다는 사실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엘라는 남편이 그토록 분개하는 모습을 보자 더 당황스러웠다. 엘라의 가장 최근 기억은 남편이 올 시간에 맞춰 돼지고기 요리를 하고 있던 지난 주 금요일 저녁이었다. 그날은 바로 사고 당일 저녁이었고 그 기억 중 자신이 임신 상태였다는 사실만 지워져 있었다. 의사는 엘라의 증상을 아이를 잃은 충격 때문에 일어난 부분 기억 상실증이라고 판단했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원래 기억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엘라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엘라를 더 슬프게 만드는 사실은 남편인 다미엔이 엘라가 일부러 기억을 잃은 척이라도 하고 있다는 듯이 엘라의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퇴원 후 돌아온 집에는 냉기가 가득했고 다미엔은 엘라가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다. 엘라는 지금 상황에 대해 다미엔과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다미엔은 계속 엘라의 눈길을 피했고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꺼렸다. 엘라는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힘들어 하는 다미엔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엘라는 잘 나가는 사업가이자 매력이 넘치는 남자인 다미엔과 처음 사랑에 빠졌던 순간들과 몰디브에서 환상적인 결혼식을 올렸던 황홀한 나날들을 떠올려 보았다. 또 잡지사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유명인들을 만나 인터뷰하던 시간들을 되짚어보았다. 하지만 엘라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이 임신부였다는 사실은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다.

회복 후 직장에 복귀한 엘라는 유명 모형을 독점으로 인터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모형

가가 직접 엘라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온 것이다. 모두들 그 네이슨 도노반이라는 모형가를 잘 알고 있었지만 엘라는 그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인터뷰 준비 중 엘라는 그 모형가의 사진을 찾아보다 깜짝 놀랐다. 그 모형가는 남편 다미엔의 도플갱어라도 해도 좋을 만큼 다미엔과 너무나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다. 엘라는 자신이 직접 인터뷰까지 한 적이 있는 이 남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 당황스러웠다. 엘라는 그와 전에 인터뷰했던 자료나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통화 내역이 있는지 노트북과 핸드폰을 다 뒤져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와 만났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엘라는 회사에서 이 일을 알면 일자리까지 잃게 될 까봐 회사 사람들 누구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 물어볼 수 없었다. 엘라는 대신 친구 레베카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레베카는 엘라가 몰디브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네이슨 도노반과 열흘 동안이나 함께 지내며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게다가 엘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인터뷰가 결국 기사로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엘라는 그날 저녁 다미엔에게 네이슨 도노반에 대해서 물었다. 다미엔은 엘라의 질문을 듣더니 당황스러운 눈치였고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 대신 자신과 함께 런던에 가자고 때를 썼다. 엘라가 그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하자 다미엔은 화를 누르고 그녀의 말에 수긍하는 척했다. 엘라는 본능적으로 네이슨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큰 위협이 될 만큼 위험한 존재였을 수도 있겠다는 이상한 추측을 하게 되었다. 엘라는 그제서야 자신이 일부러 네이슨 도노반의 흔적을 다 지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엘라는 왜 하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과 네이슨에 대한 기억만 잊어버렸는지 궁금해졌다. 엘라는 네이슨이야 말로 이 모든 일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시작했다.

엘라는 네이슨을 인터뷰하기 위해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남동 알래스카의 얼어붙은 산맥까지 그를 따라갔다. 네이슨은 엘라 자신보다 엘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네이슨은 레베카가 말해준 것과는 달리 작년 여름, 열흘이 아닌 이 주 동안이나 그들이 함께 했다고 말했다. 엘라는 네이슨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슬픔과 절망을 다 쏟아놓았다. 그러자 네이슨은 엘라를 이 곳에 다시 불러들인 이유가 자기가 시작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냈다. 심지어 그는 엘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눈물을 흘렸고 오직 남편만이 엘라를 부를 때 쓰는 호칭으로 엘라를 불렀다. 엘라는 네이슨과의 이 인터뷰가 단순한 인터뷰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엘라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날

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네이슨 도노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사랑과 상실, 슬픔, 두려움 그리고 거짓말에 관한 탄탄한 줄거리와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케리 론즈데일은 (Kerry Lonsdale) 월스트리트 저널, 아마존 베스트 셀러 1위를 기록한 시리즈 『Everything We Keep』, 『Everything We Left Behind』 과 『Everything We Give』 의 저자이다.

제목 : ALL THE HIDDEN TRUTHS

가제 : 감춰진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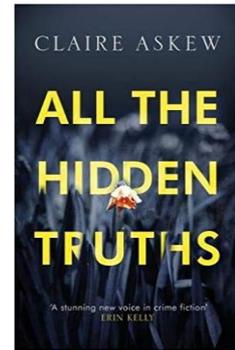
저자 : Claire Askew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18년 8월 9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서스펜스



* "생각지도 못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당신은 더욱 이 이야기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마리 끌레르」

* "생생함과 감동이 살아있는 강력한 이야기, 페이지를 다 넘길 때까지 계속되는 긴장감. 놀라운 데뷔작이다."- 「선데이 타임즈 크라임 클럽」의 카렌 로빈슨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영국 에든버러에서 벌어진 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제 갓 스무살이 된 라이언은 같은 대학 캠퍼스에서 열 세 명의 학생들을 살해하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에게까지 총구를 겨누었다. 라이언의 머리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라이언의 어머니인 모이라조차 아들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다.

사건 전날 이른 오후, 모이라는 견학 온 어린이들로 가득한 대학 도서관에 있었다. 어린 아이들을 보니 아들 라이언이 생각났다. 그는 이제 스무살이었고 제법 남자 티가 나는 청년이었다. 라이언은 어느샌가부터 밖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를 본체만체 지나쳐버렸고 둘 사이에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게 되었다. 모이라는 그게 그저 아들의 성장 과정 중 일부겠거니 하고 넘겨버리고 싶었지만 왠지 쓸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모이라는 요즘 부쩍 더 침울해 보이는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멍하니 아들 생각에 잠겨 있던 모이라를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만든 건 갑자기 사방에서 들려오는 앰بول런스 소리였다. 모이라는 불안한 마음에 이리 저리 둘러보았고 들것에 실린 한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청년은 모이라의 아들처럼 어두운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도 엇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건지 그는 모이라의 아들이 아니었고 그녀는 서둘러 그 장소를 떠났다.

같은 시각 이제 막 수사관으로 승진한 헬렌 버치는 이전 근무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다. 모두들 공중에서 떨어진 그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청년은 떨어지면서 몸에 철제 구조물이 박혔다고 했다. 헬렌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청년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 괴로워했다. 그 청년의 죽음이 마치 불길한 징조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헬렌은 차에 타자마자 경찰 무전 담당자가 총기 난사 사고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헬렌은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상황이었다. 헬렌은 사건 장소인 트리 리버스 칼리지의 한 캠퍼스로 바로 달려갔다.

한편 이사벨은 전날 딸 아버가일과 벌였던 언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에 남자친구를 사귄 것 같은 아버가일은 자꾸 뭔가를 숨기려 했다. 대학 축구팀 연습에 잘 참석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연습 간다는 핑계로 자꾸만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저녁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딸과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옆에서 일하고 있던 동료 앨리슨이 트위터에 올라오고 있는 총기 사건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사벨은 그 사건이 자신의 딸 아버가일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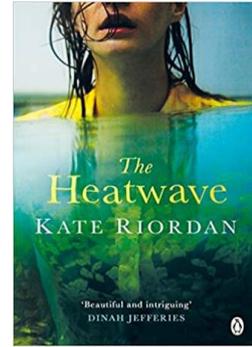
모두 열 세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모두 여학생들이었고 그 중 아버가일은 첫 번째 희생자였다. 범인은 아버가일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교 학생인 라이언이었다. 경찰들은 모이라와 라이언 모자가 살고 있는 집을 샅샅이 뒤졌다. 경찰들은 모이라에게 혹시 집에 남은 총기가 더 있는지 캐물었고 모이라는 그제서야 아까 뉴스에서 들었던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이언은 사건 현장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모이라는 이제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대체 라이언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나있었다. 세상은 죽은 라이언 대신 살인자의 어머니인 모이라를 물고 뜯으려고 했다. 사람들은 남편 없이 홀로 라이언을 키운 모이라의 양육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모이라에게 돌리려고 했다.

수사관 헬렌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언론과 소셜미디어였다. 기자 그랜트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 바로 모이라라며 여론 물이를 시도했고 기사의 조회수를 올릴 목적으로 근거 없는 낭설까지 퍼트리고 있었다. 그는 라이언이 사실은 살아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어떤 음모 조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언이 여성을 혐오하는 백인 우월집단의 한 일원이고 경찰은 더 큰 파장을 막기 위해 이 사건을 애써 덮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랜트는 모이라에게 직접 찾아가 아들이 살아 있으며 아들이 벌인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지 직접 추궁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라이언의 살해 동기뿐만이 아니었다. 아버가일이 왜 첫 번째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주요 관심사였다. 충격 사건 당시 아버가일 옆에 있었던 남자 친구 잭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가일과 함께 마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마약 관련 사업을 함께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람들은 대체 이 사실이 이 끔찍한 사건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대량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피어나는 의문과 음모 속에서 세 명의 여성 주인공을 통해 슬픔과 상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클레어 에스큐는 시인이자 소설가로 데뷔작인 이 소설로 2016년 루시 카벤디시 픽션 프라이즈 (Lucy Cavendish Fiction Prize)에서 수상 한바 있다.

제목 : THE HEATWAVE
가제 : 열풍이 불어올 때
저자 : Kate Riordan
출판사: Penguin
발행일: 2020년 5월 14일
분량 : 289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이야기를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분위기와 팽팽한 긴장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소설을 읽고 있지 않을 때조차 계속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Pearce Dear Mrs. Bird』의 저자 A.J. 피어스

1993년 7월 집에 도착한 실비는 자기 앞으로 온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어린 시절을 보낸 프랑스 라 르베리에서 온 편지였다. 실비는 그곳을 떠나 열네 살이 된 딸 엠마와 런던에서 사는 동안 단 한번도 프랑스를 그리워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 쬐는 남 프랑스보다 잠시 햇볕이 반짝이다 사라지고 마는 이 곳 런던에 사는 것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라 르베리가 다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 편지는 라 르베리의 집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다. 화재로 인해 집에 문제가 생겼으니 집을 내놓기 전 상의도 할 겸 하루 빨리 집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실비는 엠마를 그곳에 절대 데려가고 싶지 않았지만 전 남편인 그렉조차 엠마를 돌봐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엠마를 그 집에 데리고 가게 되었다. 화재 때문에 주방이 좀 상한 것 빼고는 집은 십 년 전과 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음 날 실비는 사무변호사 올리비에르를 만났다. 올리비에르는 집에 불을 지른 건 아마도 그 집이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네 아이들의 소행일거라고 말했다. 실비는 그의 말을 듣고 화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것 치고는 집이 너무나 깨끗했고 집 마당 수영장에는 그들이 올 걸 알고 미리 준비 해둔 것처럼 깨끗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실비는 당연히 배려심 깊은 올리비에르가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올리비에르는 일년에 한 두 번 그 집에 청소부들을 보내긴 했지만 정원의 풀만 조금 다듬은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실비는 일단 동생 카밀라가 집을 미리 정리해둔 것일 거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실비는 절대 카밀라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올리비에르는 이야기 도중 불쑥 실비에게 애도를 표시했다. 이게 바로 실비가 이 마을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이유였다. 실비는 올리비에르에게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 딸 엠마 앞에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실비와 엠마는 프랑스 남부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 쬐는 수영장 옆에 누워 느긋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얇은 잠에 빠져 있던 실비는 갑자기 고막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실비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 가다듬고 엠마의 곁으로 달려갔지만 엠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이 들어있었다. 실비는 곧 바로 부엌으로 달려갔다. 하룻밤 사이에 불에 그을린 흔적이 더 커져있었다. 실비는 지난 밤 잠결에 고장 난 줄 알았던 시계의 종소리를 들었을 때와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엠마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실비에게 유령의 존재를 믿냐고 물었다. 엠마 역시 이 집안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엠마는 십 년 전 이곳에 함께 살다 죽은 언니 엘로디 이야기를 꺼냈다. 엠마는 그 때 겨우 네 살이었지만 기본적인 사실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다. 엘로디가 죽자 실비는 그럭과 헤어졌고 실비와 엠마만 런던으로 이사를 간 것이었다. 엠마는 언니의 죽음과 십 년 전 이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했다. 그날 밤 엠마는 악몽을 꾸었고 실비의 침대로 달려왔다. 실비는 빗소리가 커지자 집안의 창문을 닫으러 방 밖으로 나왔다가 엠마가 부르는 소리에 다시 침실로 허겁지겁 뛰어갔다. 엠마는 그 사이에 창 밖에 서 있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했다. 사실 실비 역시 집안 곳곳에 나타나는 엘로디를 보고 있었다. 언제든 곧 고개를 돌리면 그 자리에 엘로디가 있었다. 엘로디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녀가 엘로디를 보았을 때처럼 엘로디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적대적이었다.

엘로디는 원래 그런 아이였다. 엘로디는 엄마인 실비를 보고 한 번도 웃어준 적이 없었고 말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한 때에도 엄마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엘로디는 유독 실비에게만 차갑고 공허한 표정을 지으며 쌀쌀맞게 대했다. 실비는 점점 자신의 아이에 대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 모든 게 엄마인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죄책감마저 느꼈다. 엘로디는 실비의 팔 안에서 늘 빠져나가려 했고 실비는 조금만 엘로디에게 실수를 해도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 엘로디는 걸핏하면 고래고래 고향을 질렀고 그때마다 실비는 엘로디가 엄마인 자신을 공포감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엘로디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라고 실비를 달래려고 했고 남편 그렉은 실비가 엘로디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은근히 나무라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비는 엘로디를 언제나 지켜주고 싶었고 사랑했다. 하지만 엘로디는 자라면서 점점 더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교묘하게 감추었다. 엘로디는 언제나 아빠만을 찾았고 실비를 증오했다. 실비는 엘로디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인지 아님 자신이 딸을 그렇게 만든 것인지 늘 궁금했었다.

엘로디는 엠마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엘로디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 두 모녀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엘로디는 정말 유령이 된 것일까? 사랑하는 아이에게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과 모성 신화에 대한 소름 돋는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케이트 리오던 (Kate Riordan)은 언론인이자 전작 『The Stranger 』의 저자이다.

NON-FICTION

제목 : WHAT IT MEANS TO BE MORAL

가제 : 도덕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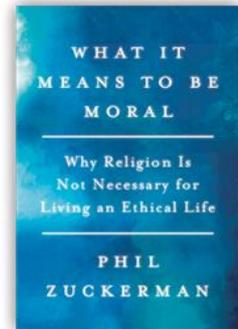
저자 : Phil Zuckerman

출판사: Counterpoint

발행일: 2019년 9월 26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인문, 철학



* " 인간의 도덕적 행동 능력에 대한 진중한 통찰." - 「커커스 리뷰」

*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질문인 ‘신을 믿지 않는 데도 어떻게 도덕적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책.”- 『Manual for Creating Atheists』의 저자 피터 보고시안

성서는 이제 책장에만 꽂혀 있을 뿐 오늘 날 우리는 사회학, 과학, 역사, 문학, 철학 및 진화심리학을 통해 이전 보다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인간의 도덕성을 지탱해주는 신념 그 외에는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저자 필 주커만은 굳이 종교에 의지하지 않아도 인간의 도덕성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인간의 도덕성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 즉, 인간의 뇌의 활동으로 생성되었다고 말한다. 인간이 점차 진화하고 문화적인 토대가 갖춰지면서 사회적 경험과 추론 능력을 통해 인간은 타인에 고통에 대해 더 민감해졌고 더 나아가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주커만은 오늘 날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지구 온난화와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거대 종교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 지는 테러, 비윤리적인 정책 입안 등을 꼽았다.

물론 모든 종교인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광신도라거나 독단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자는 불행하게도 다른 한편에는 자신들의 종교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여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근본주의자들 또한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 종교와 신앙은 삶의 모든 것이자, 정체성 그 자체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이들도 자신과 같은 신념을 가지기를 원하고 다른 종교의 전통과 가치는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진 가장 위험한 속성은 신과 종교적 규율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을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반면에 자신의 종교가 인정하는 것은 모두 도덕적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하나님의 선의를 행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에게 해가 될 것이 뻔한 법과 정책을 끝까지 옹호하는 기독교인 정치인들을 그 예로 들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미 국무 장관 마이크 폼페오는 휴거 준비까지 한 복음주의자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목소릴 계속 내고 있고 역시 또 다른 복음주의자인 미 환경보호국장 스콧 프루잇은 성경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인간에게 이로운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기후변화 정책에 따른 규제를 완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

다. 이 외에도 권력을 가진 수많은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 모든 것이 신의 뜻과 그들이 가진 도덕성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저자는 이 시점에서 도덕성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도덕성은 한 종교 집단의 이익과 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구 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복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한 집단의 바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극단주의와 근본주의에 바탕을 둔 종교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 놓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의 종교가 주장하는 도덕관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자는 샘 해리스와 같은 과학주의자들의 주장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도덕성에 대한 그 어떤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교와 달리 과학주의는 도덕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도덕성에 대해 판단할 때는 동시에 유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상에는 단일한 잣대 하나로 풀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많고 또한 도덕적인 타협과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폭력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세계관에서 한걸음 물러나 인간 본연의 내재성에 근거한 도덕성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제 1장: 왜 도덕성은 신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되는가?

1. -주의들 (-ISMS)
2. 증거의 부재는 부재의 증거다
3. 교활한 해석
4. 당신은 복종하게 될 것이다
5. 셸리, 부치 그리고 플라톤의 딜레마

제2장. 세속적인 도덕성의 근본

6. 도덕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7. 당신의 도덕성은 어디에서 온 걸까?

(이하 생략, 총 세 개의 장과 열두 개의 챕터로 구성)

<저자 소개>

저자 필 주커만(Phil Zuckerman) 피쳐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이자, 『The Nonreligious, Society Without God』을 포함한 다수의 책을 쓴 작가이다.

제목 : VITAL SIGNS

가제 : 건강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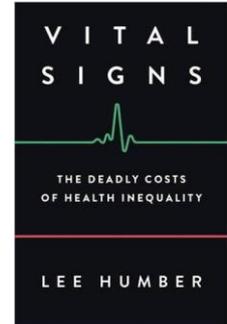
저자 : Lee Humber

출판사: Pluto Press

발행일: 2019년 8월 20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건강, 사회



*신자유주의 시대가 당연한 또 다른 문제, 건강 불평등에 관한 사회학적 보고서

현 인류는 더 이상 자연적인 요인이나 노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건강, 건강 관리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책은 전세계적으로 각 정부가 대다수의 국민의 건강을 소홀하게 다루기로 선택하면서 우리의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저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결국 부자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밝혀냈다. 저자는 이 시대의 건강 문제는 바로 ‘건강 불평등’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건강 불평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분석한다. 또한 건강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역사에 뿌리를 둔 매우 복잡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보건기구 (WHO)의 사무 총장을 역임했던 마가렛 찬 평 푸춘 박사는 은퇴식에서 21세기가 당연한 건강 문제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세계인이 글로벌 식품회사에서 출시한 질 떨어지는 음식을 함께 먹고 있으며 거대한 마케팅 전략에 속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인 인구 노령화와 급속한 도시화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인류는 과거와 달리, 전염병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푸춘 박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공중 보건 전문가 앤 엠마뉴엘 번과 요간 필레이는 푸춘 박사가 언급하지 않은 문제를 추가적으로 지적했다. 이 두 전문가는 열악한 생활 환경과 노동 조건, 의료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와 권력, 자원의 편향된 분배 때문에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불평등 문제를 우리가 대면한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위의 주장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전반부에서 건강 관련 시장 동향에서 드러난 오늘날의 건강 철학과 현재 가장 지배적인 건강관리 방식에서 나타나는 건강문제의 본질을 살펴본다. 또한 영국과 미국 의료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어떻게 이러한 건강 관리 방식이 설립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추적한다. 저자는 더 나아가 건강 불평등 문제를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역사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영국, 러시아,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난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본다. 그 다음 후반부에서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건강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WHO와 같은 국제기구와 정부 기관이 세계시민과 국민의 건강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과 시도를 했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영국 공공의료서비스인 NHS (National Health Service)의 역사적 뿌리를 들여다보며 NHS 가 과연 실제로 영국 국민들의 건강발전을 위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따져본다.

저자는 건강은 결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론적 접근 방식을 통해 주택, 식생활 및 노동조건과 사회 및 정치적 문제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건강불평등이 시작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는 책이다.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건강관리

제3장. 합병 및 독점 그리고 ‘떠오르는 억만장자들’

제4장.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제5장. ‘불평등 이론’ The ‘Inequality Thesis’

제6장. 인구고령화?

제7장. 건강, 권력 그리고 패러다임 Health, Power and Paradigms

제8장. 건강을 위한 법안?

제9장. WHO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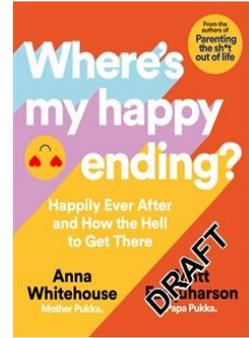
제10장. 공공의료서비스: 절반은 이루어진 혁명?

제11장. 결론

<저자 소개>

리 험버 (Lee Humber) 건강과 사회복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이자 활동가, 칼럼니스트이다.

제목 : WHERE'S MY HAPPY ENDING?
가제 : 우리는 정말 해피엔딩일까?
저자 : Anna Whitehouse, Matt Farquharson
출판사: Bluebird
발행일: 2020년 2월 6일
분량 : 320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처세



*** 해피 엔딩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과연 사랑은 영원할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

전형적인 로맨스 물의 해피 엔딩은 사랑에 빠진 두 주인공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입을 맞추면서 혹은 결혼에 골인하면서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중 아무도 그 이후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한다. 결혼 생활이라는 실전에 투입된 두 주인공이 육아와 살림 문제로 다투다가 원수처럼 변해 갈 수도 있고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그 사랑이 한순간에 사그라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아마도 한창 연애의 단꿈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결혼 한지 이제 10년 차가 된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중 누구도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과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는 확신은 갖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우리 사랑의 진정한 해피 엔딩은 이 삶이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일까?

이 책의 공저자 애나 화이트하우스와 맷 파쿠아슨은 어느 날,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떠올려보고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했다. 두 저자는 사랑과 성, 관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기록했다. 그들이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전직 성 노동자와 한 때 제비족이었던 그녀의 남편도 있었고 로맨틱한 관계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독신을 서약한 사제들과 자유 연애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히피 족들도 있었다. 또한 두 저자는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선택한 커플들의 최대 난제인 육아 문제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커플들, 반대로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만났다. 더 나아가 전문적인 견해를 얻기 위해 페미니스트학자들, 신경과 전문의, 심리학자, 로맨스 소설가들은 물론 포르노 제작자까지 직접 인터뷰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속하거나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연애 철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두 사람만의 배타적인 연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삼자 간의 연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혼주의자, 게이 혹은 관계나 개인의 정체성을 특정한 명칭으로 구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 두 저자는 인터뷰 중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십년 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며 깨달은 이야기들 또한 들려준다.

모든 애정 관계에는 눈물, 웃음, 좌절, 시행 착오들이 있었다. 또한 사회가 정한 규범 밖에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책은 점점 달라지는 연애 풍속도와 소셜미디어와 연애 관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현대의 로맨스라는 이 진흙탕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바라보는 방식이 더 단순해질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판단은 역시 독자의 몫이 될 것이다.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 다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슴 한 켠에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나름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머리말 >

제1장. 단 하나의 사랑: 대체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제2장. 혼자만의 시간: 싱글의 삶이 더 나은 걸까?

제3장. 매치 성공: 어떻게 '단 하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을까?

제4장. 가사 일: 동등하게 가사 분담을 하며 사는 것이 가능할까?

제5장. 오, 베이비: 정말로 아이를 가져야 할까?

제6장. 드디어 수요일: 어떻게 성욕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제7장. 포르노가 없는 세상: 저질이면 어떨까?

제8장. 진정한 로맨스: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사랑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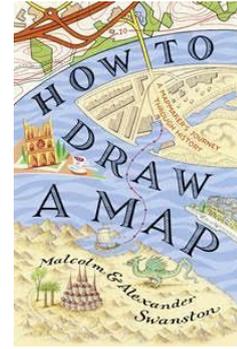
제9장. 사회적인 문제들: 우리는 정말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일까?

제10장. 짐착 혹은 비틀림: 우리는 정말 천생 연분일까?

<저자 소개>

애나 화이트하우스 (Anna Whitehouse)와 매트 파쿠아슨(Matt Farquharson)은 둘 다 10년 이상 기자로 활동 해 왔으며,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인 『Parenting The Sh*t Out Of Life: For people who happen to be parents』의 저자이다.

제목 : HOW TO DRAW A MAP
가제 : 지도의 역사
저자 : Malcolm Swanston, Alex Swanston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9년 9월 5일
분량 : 288페이지
장르 : 교양, 역사



*** 지도의 역사가 곧 인류가 남긴 삶의 흔적이다. 지도를 따라 그려보는 인류의 역사.**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지도에 의존하고 있다. 낭만을 좇는 여행자들은 여전히 낯선 나라에서도 종이 지도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현대인들의 손에는 늘 구글 지도가 있다. 삼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지도를 그리고 지도의 역사에 대한 글을 써온 두 저자 말콤 스완슨과 알렉스 스완슨은 든든한 업무 파트너이자 사이 좋은 부자 지간이다. 아버지인 말콤은 지난 오십여 년간 우리에게 친숙한 일반적인 로드맵부터 특정한 주제나 이야기가 담긴 테마 지도를 제작해 온 전문가이자 손으로 지도를 그렸던 시절부터 컴퓨터 마우스 하나로 지도를 그리는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지도 제작 역사를 온 몸으로 겪은 살아있는 역사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싼 세계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말콤 스완슨은 이러한 면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지도를 그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눈 앞에 펼쳐진 널따란 세계의 작은 일부라도 프레임에 넣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지도는 어떤 의미일까? 지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인간의 삶, 죽음, 성생활과 생식, 간첩, 전쟁 및 평화와 같은 인류의 삶 속 다양한 분야와 역사적 순간에 대한 중요한 흔적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인간이 처음으로 돌을 이용해 동굴 벽을 긁어가며 지도를 그렸던 때부터 첨단 소프트웨어인 '네비게이터'를 이용해 지도를 그리는 오늘 날까지 이르는 긴긴 지도 제작 역사의 발자취를 좇는다. 지도 제작의 역사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때론 오해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한 지도 제작자가 평생 동안 지도를 만들면서 흥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때로는 좌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던 소소한 순간들이 담긴 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 5,000 년 동안 수 많은 제국과 체제가 역사 속으로 훌륭히 사라지기도 했고 또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들 중 대부분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 15 세기, 유럽인들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 배를 타고 전세계를 향해했다. 지도 제작자들은 이 위대한 여정을 종이 위에 그리며 기록했고 덕분에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들의 실패와 성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우리가 현재 '현대' 세계라고 인식하는 이 세상을 그리고 기록한 사람들인 것이다.

이 책의 도입부에는 지도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기, 당시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세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특별한 지도들이 소개된다. 그 다음 저자는 우리 인류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점차 알게 되면서 지구 상에서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들을 찾아가며 새롭게 터전을 잡고 문명을 꾸려 가던 시기의 지도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후반부는 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제별 자료들과 지도 제작을 위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스스로 업데이트 하는 최첨단 지도 제작의 미래를 미리 살펴본다. 지도 제작의 역사를 통해 인류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 책이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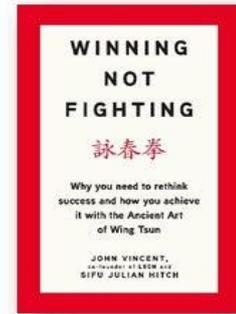
머리말

1. 잃어버린 에덴 동산
2. 아나크시만드로스의 비전'
3. 로마의 유산The Legacy of Rome
4.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
5.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상 Visions of a New World
6.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이전의 대서양 항해
7. 세계 최초의 우회
8. 영국식 세계관
9. 메르카토르, 세계를 탐색하다

<저자 소개>

알렌산더 스완슨 (Alexander Swanston)과 말콤 스완슨 (Malcolm Swanston)은 고대 로마에서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함께 썼다. 공동 저작으로 『The Atlas of the Civil War』, 『The Historical Atlas of the Bible』과 『The Historical Atlas of Knights and Castles』이 있다.

제목 : WINNING NOT FIGHTING
가제 :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저자 : John Vincent , Sifu Julian Hitch
출판사: Portfolio Penguin
발행일: 2019년 11월 7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동양 무술과 현대 비즈니스 문화라는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두 분야의 조합을 통해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획기적인 통찰을 제공해주는 책" - 베스트셀러 『The Course of Love』의 저자이자 철학자 알랭 드 보통**

일상이라는 전쟁터에서도 강력한 고대 무술을 써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책은 고대 중국 무술인 영춘권의 철학을 바탕으로 직장, 사업, 일상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 주는 책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시푸 줄리안 히치는 영춘권의 철학과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나머지 저자인 존 빈센트는 자신이 직접 영춘권의 철학을 사업과 일상생활에 적용시켜본 경험담을 들려준다. 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팀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선에서 물러나 여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새로운 도전 분야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춘권에 담긴 지혜를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보편적인 관점에서 전달하고자 한다.

이 책은 영춘권의 다섯 가지 형식 혹은 다섯 가지 관문에 대해서 설명한다. 두 저자는 독자들이 그 옛날 영춘권을 수련했던 학도들이 영춘권을 배웠던 순서 그대로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했다. 영춘권에는 3000여 년 동안이나 굳건 했던 문명 속에서 수많은 영춘권의 대가들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지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진짜 싸울 것도 아닌데 무술의 철학을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실 영춘권에서는 싸움 자체는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영춘권은 싸움을 위한 무술이 아닌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과 거짓 된 자아를 버리고 피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도 담담하고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밀고 나가는 방법을 알려 주는 철학이다. 또한 영춘권은 우리가 최소한의 힘을 사용해 최대한 피해를 줄여나가며 승리의 고지를 쟁취하는 법을 알려 준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고대의 무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경제적, 생태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문제들은 단순히 제도적인 해결방안만으로는 풀 수 없는 사안이다. 저자는 이 문제들을 둘러싼 문화와 사고방식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영춘권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줄 철학이라고 주장한다.

영춘권에서 말하는 승리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영춘권에서 말하는 승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아 갈 수 있는 세가지 요소를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그 첫째 요소는 바로 현재를 즐기는 것이고 둘 째는 장수하는 것, 셋째는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라기보다 우리 삶을 이끄는 중심 원칙이다. 즉 영춘권에서 말하는 승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이루어 내야 하는 어떤 물질적인 성과가 아니다. 영춘권은 언제나 개인적 성취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지혜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이다. 심오하면서도 단순한 고대 무술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인생과 성공의 의미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책이다.

<목차>

작가 노트

머리말: ‘내가 사실은 장군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제1장.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Winning Not Fighting

제2장. 전쟁의 서막

첫 번째 관문: 시우 님 타오 (SIU NIM TAO): 의식하기

제3장. 너 자신을 알라

제4장. 느긋함을 유지하기

두번째 관문 : 침 키우 (CHUM KIU) 의식적으로 연결하기

제5장. 강요하지 않기 157

제6장. 긍정성 Positivity

세번째 관문: 비우 지 (BIU JEE) 자각하기

제7장. 단순함

(이하 생략, 총 1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존 빈센트 (John Vincent)는 식품업체 레온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이며 시푸 줄리안 히치(Sifu Julian Hitch)는 유럽 내 가장 명망 있는, 영춘권의 대가이다.

제목 : I WANT TO THANK YOU

가제 : 365일 감사 편지 쓰기

저자 : Gina Hamadey

출판사: Tarcher

발행일: 2021년 초 예정

장르 : 자기계발



*** 매일 매일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실천, 감사 편지 쓰기**

매일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기란 참 어려운 일일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해야 모종의 성과라도 거둘 수 있는 만큼 행복해지는 데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 책의 저자 지마 하마데이는 일년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노트’를 썼다. 저자는 한 해의 시작부터 이번 해를 ‘감사의 해’라고 정했고 각 달 별로 감사 주제 혹은 대상을 정했다. 그 중에는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인 이웃, 가족, 친구들이 있었고 여행, 음식, 건강과 같은 추상적이거나 뜻 깊은 경험과 관련된 것도 있었다. 또한 저자는 또한 친구나 지인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도움과 기쁨을 준 의사, 요리사, 작가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 편지를 쓰면서 더욱 이 기록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저자는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과 경험에 대해 글쓰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진정한 감사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사 편지를 쓰는 일은 우리가 좀 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도록 인도한다. 저자 역시 감사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을 고스란히 얻는 놀라운 체험을 했고 때로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이 책에는 저자 자신의 체험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 신경의학자, 심리치료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저자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감사 편지 혹은 노트를 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감사 편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 저자는 먼저 자신에게 아주 사소한 도움이라도 한번씩 줬던 사람들을 곰곰이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는 직접 ‘감사 카드’를 만들어 그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저자는 이 경험을 통해 주변 이웃들과 더 끈끈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으로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다음 달은 친구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달이었다. 친구들은 이웃과는 좀 다른 존재들이었다. 친구에게 특별히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오직 그들의 존재 그 자체가 축복이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각 친구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을 찾아 마치 엽서처럼 활용해보았다. 저자는 특히 사이가 소원해진 친구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한 장의 편지가 멀어져버린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아들에 생일에 맞춰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썼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일은 있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 그리 흔치 않은 일이지 않은가? 저자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엄마로서 성장한 나날들을 돌아보았고 진정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해준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은 부모 자신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 방식이기도 하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해 더 훌륭한 자기 관리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생활이나 다른 공동체 생활에서 높은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내 안의 감사가 타인, 더 나아가 공동체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저자는 감사 편지를 쓰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추억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한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더 행복한 내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따뜻한 이야기들만큼이나 아기자기하고 예쁜 삽화 또한 돋보인다.

<목차>

- 제1장. 1월: 따뜻함
- 제2장. 2월: 이웃들에게
- 제3장. 3월: 친구들에게
- 제4장. 4월: 아이들에게
- 제5장. 5월: 건강에 대해
- 제6장. 6월: 나의 집
- 제7장. 7월: 음식
- 제8장. 8월: 여행
- 제9장. 9월: 직업
- 제10장. 10월: 책
- 제11장. 11월: 가족
- 제12장. 12월: 사랑
- 제13장. 12월: 되돌아 보기

<저자소개>

지나 하마데이 (Gina Hamadey)는 각종 잡지사에 글을 기고한 바 있으며 「Food & Wine」, 「Rachael Ray Every Day」 등의 잡지가 편집자로 일 한 바 있다.